

공공도서관의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임무 분석*

Analysis of Manuals and Missions for Responding to Disasters in the Public Library

배 경 재 (Kyungjae Bae)**

정 다 희 (Dahee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공공도서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임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분석 |
| 2. 국내외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분석 | |
| 3. 해외 도서관 주요 재난상황 대응 임무 분석 | 5. 결 론 |

초 록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19가 확진된 이후 국내 공공도서관의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실제적인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은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적 기관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한 근거로 삼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매뉴얼의 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재난을 경험한 해외 도서관의 대응 임무를 분석하여 현재 국내 상황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의 확장 가능성을 제기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경험을 아카이브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서관의 언택트 시스템과 오픈형 스페이스를 강화하여야 점이 제언되었다.

ABSTRACT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manuals for responding to disasters in public libraries has emerged after COVID-19 was confirmed in Korea in January 2020. The library is a social organization directed affected by COVID-19. Therefore, a reasonable and consistent disaster response manual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as a guideline for responding to disasters at the library sites.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library manuals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rthermore, the responses of overseas libraries experiencing major disasters were analyzed and issued to reflect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library's role as a social organization for disaster response should be enhanced, and that disaster experience needs to be implemented, as guidelines, toolkits, and archive.

키워드: 도서관 재난 매뉴얼, 공공도서관, 코로나 19,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Disaster Response Manual for Library, Public Library, COVID-19, Disaster Response Guideline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bae@dongduk.ac.kr / ISNI 0000 0004 6426 0952) (제1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ahee@dongduk.ac.kr / ISNI 0000 0004 7553 170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31-249,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23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도서관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휴관(비대면 서비스 전환)과 부분개관을 반복하고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사서는 비상 상황에서 사전예약 대출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기획·운영 및 외부 방역활동 지원 등의 업무로 인해 코로나 19 이전보다 더욱 분주해진 일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관련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대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도서관별 휴관 등의 운영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¹⁾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사회적 재난 상황²⁾에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의 시사점과 전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중대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국내 도서관계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황이며, 따라서 중대한 재난 경험이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관련 매뉴얼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공공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공공시설로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에 기여 가능한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선을 도서관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였을 때 시민들이 코로나 19 시대에 도서관에게 기대하며, 또한 도서관이 잘 해낼 수 있는 기능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도서관이 사회적 주요 공공시설로서 재난시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서관의 새로운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외 도서관 재난 대응 매뉴얼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유형별 도서관 대처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둘째, 중대 재난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국가의 도서관 대응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이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국내에서 도서관과 재난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고, 연구의 범위 또한 폭이 넓지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태풍,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해와 함께 테러 등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포옥(2006)은 우

1) 2020년 10월 개최된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제6차 사서·릴레이대토론회에서 '재난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경기도사서협의회'의 주관 하에 세션이 개최되었고, 이 토론회에서 도서관 휴관과 재개관, 인력 및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현장 사서들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리나라 역시 향후 지진이나 테러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대전·전북 지역의 공공도서관 75곳을 대상으로 비상시 재난대책에 관한 현재 실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경험했던 재난의 범위는 대부분 홍수로 인한 건물지붕의 누수나 침수 및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나 해킹 그리고 태풍 또는 도난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큰 화재나 지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직원들의 행동요령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73%이고, 27%의 도서관은 아무런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치를 한명도 배치하지 않은 도서관이 39%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강좌나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이 28%로 나타나 전반적인 도서관의 재난 예방 대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포옥(2006)의 연구 이후에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바 있다(이정수 외 3인, 2016).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위기별 안전관리', '정보자원 복구',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의 4가지 영역과 각각의 영역별 세부 위기별 안전관리 요소로 매뉴얼 구성을 제안하였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전염성 질병'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전 관리 사항으로 주기적인 방역작업과 전염병 예방수칙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예방/대비에서는 전염성 예방교육과 도서관 내 위생관리 등

을, 대응·복구에서는 전염 감소를 위한 조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

신지은, 배경재(2015)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사회적 이슈 현장에 도서관이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및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보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정보제약 상황에서 구성원간의 소통과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 19 상황이 확산된 이후 최근 도서관의 관점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연구가 실행되었다. 노영희, 노지윤(2020)은 도서관의 대피시설 지정여부 및 관련 서비스 현황, 재난 및 재해 대응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임시 또는 상시 등 공간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대피처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성원(2020)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의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과 방안 수립 시의 고려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2020)은 통합사이트로 서비스되는 공공도서관 288개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료검색과 전자도서관, 도서관서비스, 문화행사, 열린공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대,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다양화, 온라인 문화행사 서비스 확대, 열린공간 서비스 다양화, 출입 기반 무인 대출반납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VR·AR 및 MR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콘텐츠 확대를 제안하였다.

박태연, 오호정(2020)은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도서관계의 대응 활동 양상을 살펴 보았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뉴스의 보도 양상과 주요 이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과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 전자책 대출의 증가, 온라인 서비스 및 사서에 대한 기대감 향상, 도서관 공간 요구의 재조명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수행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감염병 상황과 관련된 도서관의 대응방안과 서비스 전략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연구 결과 도출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내외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분석

국내외의 대표적인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도서관연구소 2015)를 비롯하여,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발간한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IFLA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 2006), 그리고 중대한 재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³⁾ 아래에 제시된 매뉴얼 사례는 고유의 내·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서로 다른 환경을 감안하여 국내의 상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2.1 국내

2.1.1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도서관연구소 2015)

2015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소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검토하여, 유사한 요소의 군집화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위기별 안전관리 요소로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요소로 '안전관리 계획 및 평가', '자연 재해', '안전사고', '이용자 안전', '정보 보안', '안전관리 조직체계', '직원 및 이용자 교육', '비상용품', '정보자원복구', '안전관리 점검 리스트'로 구분하여 도서관에서의 위기별

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0년 10월 26일 '도서관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의 초안을 온라인에서 공개하였으나, 최종버전이 아니며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매뉴얼에서는 제외하였다.

안전관리 요소를 제시하였다.

각 10개 요소는 <표 1>과 같이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성과 세부내용의 포함 항목으로 설계되어 제안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시된 사항은 <표 2>와 같이 '2. 위기별 안전관리'의 '이용자 안전' 항목 하위 '전염성 질병'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의와 함께, 도서관의 사전 관리 사항, 예방/대비, 대응/복구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뉴얼로서의 체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영역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 사전관리 사항의 경우 비상연락망, 방역 작업, 소독제·소독기 비치, 이용자 교육 등의

일반적인 사항 정도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세성까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학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전시켜 실제적인 매뉴얼로 발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뉴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기별 안전관리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각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매뉴얼 사례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안전사고, 이용자 안전, 정보보안으로 분류한 것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감염병, 지진, 태풍 등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표 1>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성과 세부내용(도서관연구소 2015)

영역	항목	세부내용
1.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안전관리의 평가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구축	안전관리 조직체계, 상황별 연락체계
	직원 및 이용자 교육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이용자 응대 서비스 교육
2. 위기별 안전관리	자연재해	태풍·강풍 낙뢰·정전 홍수·호우·침수·누수 폭염 폭설·한파 황사 지진
	안전사고	화재 가스누출 감전 시설 및 물품 파손 차량사고 승강기사고 환자 발생
	이용자 안전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치매 및 이상행동) 관내 소란 성폭력 도난사고 정보자원 파·오손 흡연 음식물 섭취 애완동물 반입 쓰레기 투기 해충 고의성 민원, 이용자 간 문제 직원에 대한 위해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장애 및 해킹 개인정보보호
3. 정보자원 복구	도서자원 복구, 비도서자원 복구, 전자자원 복구	
4.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관리·감독, 비상대응, 시설안전, 피난·방화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관리	

〈표 2〉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의 '전염성 질병' 기술

2.3.1 전염성 질병

- '전염성 질병'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증상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을 의미
- 2009년 4월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5월 메르스의 유행으로 예방과 대응이 사회적 이슈가 됨.
-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2.3.11 해충'도 보라.

○ 사전 관리 사항

- 비상연락망 및 비상 시 대처방법 숙지
- 주기적인 방역작업 철저
- 도서관에 손소독제, 책 소독기 등을 비치하여 사용 유도
- 이용자 대상 전염병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 예방/대비

- TV, 라디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
-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예방수칙을 제공하고 손 씻기,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교육 강화와 협조를 요청
- 음용수 및 시설물 등 위생관리를 강화
- 시설 및 오염된 물건, 도서 등 각종 자료를 소독
- 이용자에게 손소독제, 책 소독기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

○ 대응/복구

- 동참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함(방역 철저, 손소독제·책 소독기 설치 등)
- 전염 감소를 위해 도서관 휴관 또는 운영시간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임시 중단을 고려
- 이용자 응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함
-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시파악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신고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환자 격리, 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전염병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요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재난에 초점을 둔 매뉴얼 연구가 필요하다.

2.2 해외

2.2.1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IFLA 2006)

2006년 세계도서관협회연맹에서 공표한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IFLA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은 세계의 각국 도서관계에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매뉴얼이다. 도서관과 기록보존

소 등은 각 기관의 현황과 자원을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재난 대비 계획의 업데이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매뉴얼로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매뉴얼에서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서 재난대비계획에 대한 여러 변경사항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독립건물 또는 복합건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재난대비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서관 의사결정 절차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매뉴얼의 내용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전체 구성은 개요, 위험요소 평가, 예방 및 보호, 준비, 대처 및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 발생 이전부터 재난 발생 이후까지 시계열 순으로 필요한 내용을 체계화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복구’ 영역에서 이용자들이 대한 서비스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재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즉 도서관의 관점에서 완전 재개관은 이용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준비되어야 한다(〈표 4〉 참조).

〈표 3〉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의 내용 구성

영역	목차
개요	1. 계획 2. 대응
위험요소 평가 (잠재적 재난의 원인 파악)	1. 위험요소 평가 2. 기존 재난 대비계획의 평가 3. 화재 및 수해
예방 및 보호 (재해 위험의 관리)	1. 건물 인근 2. 건물의 구조 3. 보안 4. 보관 시스템 5. 보험 6. 수해: 보호 7. 화재
준비	1. 재난 준비계획의 작성 2. 재난 대응 팀 직원들의 역할 3. 계획의 활용 4. 계획의 검토 및 변경 5. 직원의 교육훈련 6. 구조를 위한 우선순위 자료 선정 7. 해당 계획의 실행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유지하고 업데이트 할 것 8. 외부 기관 및 개인들과의 연락망을 만들고 유지할 것 9. 비상용장비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 10. 긴급 자금 지원 마련 11. ‘복구’ 구역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 12. 재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작성
대처 및 대응 (재난 발생시)	1. 초기 대응 2. 재난에 대한 주요 대응 3. 구조
복구	1. 이용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2. 건물 3. 소장자료 4. 보험 5. 재난의 분석

〈표 4〉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의 ‘복구’ 기술

* 복구(정상 상태로의 복구)

1.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최대한 신속히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대체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원을 유도함
- 직원들의 심리를 고려함
-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함

2.2.2 미국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도서관’

(Halsted, Clifton and Wilson 2014)

미국도서관협회(ALA) 날-슈만 출판사는 미국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사서를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로서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도서관’을 출판하여 온라인으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초대형 재난을 경험한 이후 미국의 사서들은 지역사회와 모기관을 위한 재난 대응 활동에 더욱 깊게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 및 미국 의학도서관협회와 같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조직으로서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1월,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연방정부 지침 Stafford Act 403항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을 재난시 필수적인 지역사회 조직으로 인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이 재난시 대응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도서관 단체와 사서들의 일련의 노력으로 도서관이 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미국 도서관계는 재난 발생 시마다 매우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미국 도서관계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특히 ‘7장 도서관의 활용’편에서 재난 상황시 도서관이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역할과 더불어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즉 사서 인력이 지역사회의 비상 대응팀 팀원으로 정식 임명되어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표 5〉 참조).

미국은 2009년 여름, H1N1 독감(돼지독감) 팬데믹 대응시 위스콘신 주의 대응계획 사례를 참고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2011년 〈표 6〉과 같은 도서관 대응 정책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 참고사례로 활용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시 팬데믹 단계에 따라 도서관의 대응 절차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2.3 호주 ‘도서관 재난 대비와 복구 계획 지침서’(ALIA 2010)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는 2009년 빅토리아 주 산불을 겪은 이후, 이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재난대비 및 복구계획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표 5〉 미국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도서관’ 매뉴얼 내용 구성

목차	세부 내용
1장. 위협평가와 운영계획 지속성	- 위협 평가의 단계
2장. 위협상황에 대한 대응	- 즉시적인 대응의 중요성 -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 - 대응훈련 지원 설계 - 사후 조치 검토
3장. 독자적 대응과 외부 지원 요청	- 현장(On-site) 계획 - 현장 밖(Off-site) 계획 - 외부 지원계획
4장. 서비스 지속 계획 포켓 매뉴얼	- 배경 - 서비스 지속을 위한 대응계획 포켓 매뉴얼
5장.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가능성 활용	- 모바일 기술 - 소셜 네트워킹 - 기타 도구들 - 도전 과제
6장. 개인별 위기 대응 및 도서관 서비스의 영향	- 키트 만들기 - 계획 수립 - 특정 위협
7장. 도서관의 활용	- 전통적인 역할 : 재난정보 서비스기관, 재난기구 지원기관, 커뮤니티 지원기관, 교육훈련기관 - 새로운 역할 : 사서의 커뮤니티 비상대응 팀 참가 등
8장. 협력적 참여를 위한 재난대비 가상시나리오 (허리케인, 지진)	- 허리케인, 지진 가상 시나리오

〈표 6〉 미국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도서관’ 매뉴얼의 ‘감염병’ 관련 기술

- 도서관 휴관 기준
- 병가, 급여 및 은행/금융 문제, 재택근무를 위한 직원 정책
- 다른 직원이 아픈 직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교차 교육을 의무적으로 문서화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용자들이 서로 가까이 앉지 않도록 의자를 배치하거나,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외부 걸이를 치우는 등 사람과 소지품을 서로 분리
- 스토리타임 및 기타 도서관 프로그램 중단 기준
- 마스크, 장갑의 제공 및 위생물품 폐기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 병가 직원의 작업 공간 청소 표준(욕실, 난간 및 문 손잡이, 전화, 키보드, 휴지통 비우기 등)
- 도서관이 장기간 휴관할 경우 중요 시설 및 관리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 설정(관리자에 의한 건물 점검, 도서 반납 처리, 급여 및 은행 업무 고려 사항)
- 직원 연락 및 이용자 공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
- 공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지속 방안(필요 소모품의 온라인 주문, 자료 픽업 및 반납 대체지,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 지역 신문 및 가정용 컴퓨터 같은 자원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식정보취약계층 이용자의 요구 사항 수용
- 전국적인 공중 보건 행사 이전에 앞선 공공 대상의 보건 교육

이 가이드는 예방, 대비, 대응, 회복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재난 피해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도서관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와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하여 대응책과 회복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난 계획이 지역사회가 소속된 지방정부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근 문화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함께 공동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7〉에서 ‘도서관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경우’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회복, 건강 및 웰빙에 대해 지원해야 하며, 재건을 위해 재난상황을 아카이빙하는 한편 시민들의 훼손된 개인 서가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표 7〉 호주 ‘도서관 재난 대비와 복구 계획 지침서’ 내용 구성

목차	세부 내용
1. 도입	-
2. 향후 계획	2.1 상황별 재해 계획 2.2 위험도 평가 2.3 우선순위 지정 2.4 비상용품 2.5 상세 평면도 2.6 재난팀 2.7 지역 지원 네트워크 구축 2.8 시나리오 2.9 보험
3. 도서관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대응방안	3.1 적합 행동 3.2 상황 평가 3.3 긴급 대피 3.4 제3자 지원 3.5 통제센터 설치
4. 도서관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	4.1 도서관의 역할 4.2 유용한 물품 4.3 대출반납 유예
5. 도서관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회복방안	5.1 환경 안정화 5.2 요구사항 5.3 폐기 5.4 기록 및 평가 5.5 청소
6. 도서관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회복방안	6.1 사회적 회복, 건강 및 웰빙 6.2 정상활동 재개 6.3 커뮤니케이션 허브 6.4 기부 관리 6.5 도서, 기록물 복원 지원
7. 재건	7.1 건물 피해 복구 7.2 기록물 아카이빙 7.3 개인장서 복구 지원 7.4 경험을 통한 학습
8. 유용한 자원	

3. 해외 도서관 주요 재난상황 대응 임무 분석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을 때 도서관의 대응활동 사례를 통해 현재 시점의 국내 도서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코로나 19)으로 구분하여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3.1 자연 재난

3.1.1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해저 거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 및 그 이후 닥친 쓰나미, 여진 등으로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 사이 동일본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동북부 지역의 도로 및 철도가 끊기는 등 많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화재 및 댐 붕괴 등으로 심각한 대규모의 구조적 피해를 입었다(위키백과 2020).

도서관의 경우 이와테 현 쓰나미로 침수된 리쿠젠 다카다 시립 도서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테현립도서관은 소장품의 10%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산시스템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현내 56개 도서관 중 리쿠젠타카다 시립도서관, 오쓰치 시립도서관, 노다 마을도서관, 일부 학교도서관은 쓰나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미야기현에서는 쓰나미로 전소된 미나미산리쿠 타운 도서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야기

현립 도서관에서는 거의 100만 점의 장서 전부가 바닥에 떨어졌다. 건물과 도서관 컴퓨터 시스템이 손상되었으며, 예상 피해액은 약 6,000만엔 규모이다. 미나미산리쿠 타운 도서관, 오나가와 평생교육센터, 일부 학교 건물이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후쿠시마현립도서관 건물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지만, 현 내의 다른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피소에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였다.⁴⁾

이와 같은 일본 도서관계의 대규모 재난의 복구를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조직은 일본도서관협회이다.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수행한 활동은 <표 8>과 같다(Taro 2011).

3.1.2 2012년 미국 허리케인 샌디

미국 도서관계는 2011년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도서관을 재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필수 지역사회 조직으로 인정하도록 방침을 변경한 이후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 왔다. 기존의 재난대비활동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점에서 재난의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었으나, 2010년 이후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도록 담론을 확장한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지역 주민, 응급구호요원, 의료인 등에게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재난피해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활동이다.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4) 일본도서관협회 홈페이지의 'Situation Report o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페이지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표 8〉 일본도서관협회의 동일본 대지진 복구 지원활동

구분	활동 내용
독서프로그램 및 책 기증	일본도서관 협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주말마다 대피소와 학교를 방문해 미야기현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500권의 책을 기증했음(재해지역은 다른 오락 거리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와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이동도서관	도서관이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서는 이동도서관 요구가 컸음
책 수선	문화재, 지역사료 등 가치 있는 장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수선작업에 착수함 (사서들이 수선작업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
기부금 요청	도서관의 복구와 복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 진행
출판물 지원	저작권단체에 지진피해 지역의 도서관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재난으로 인해 정보 획득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도서관이 자료를 복사해 재난 피해 지역 내 사람이나 다른 도서관에 보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받음
일본 정부에 대한 요청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손상된 도서관의 서비스 재개를 돕기 위한 직원 및 예산 배정, 장애인을 위한 독서기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 기간제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서관 폐쇄로 인한 해고를 막도록 정부에 요청

of Libraries of Medicine)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재난 이전과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재난 복구센터, 정보허브, 피난자 물자지원처 등)으로 그 정체성이 확립되었음을 밝혔다(Hagar 2014).

허리케인 샌디 상황에서 도서관은 식품과 음료를 배포하는 등 비상물자 배포기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사무실을 잃은 사업가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사무용 공간 제공처, 학교가 휴교할 동안 부가적인 아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좁고 어두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캠핑’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곳곳에서는 도서관에서 모바일 기기를 충전하는 사람들, 온라인상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연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IMLS Blog 2012).

3.2 사회 재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활동

3.2.1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정보 공유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도서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⁵⁾ 제공 중인 정보의 목록은 〈표 9〉와 같으며, 특히 재재관 준비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2.2 미국도서관협회의 코로나 19 대응

미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미

5) COVID-19 and the Global Library Field 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https://www.ifla.org/covid-19-and-libraries#plans>〉

〈표 9〉 IFLA ‘COVID-19 and the Global Library Field’ 내용 구성

-
- COVID-19와 대유행에 대한 이해
 - 세계 도서관 휴관 상황
 - 도서관 휴관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개관, 일부 제한, 최소 서비스 유지, 완전 휴관, 재개관 준비
 - 집과 직장에서의 안전 유지
 - : 자료 감염 예방 -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 적용(자료격리 종이책 1일, 플라스틱커버 3일 등)
 - : 사회적 거리두기 및 택배 서비스
 - 원격 서비스 제공
 - 가능한 정보원
 - 재택 근무 관리
 - 도서관 자원(인력, 장비, 시설)의 재난 대응 활용
 - 재개관 준비
 - : 방문 이용자 수 제한
 - : 관내 이용자 거리 유지
 - : 도서관 행사 준비
 - : 위생 관리
 - : 정기간행물 이용 관리(다수 이용자 접촉 가능성으로 열람 제한)
 - : 직원 안전관리
 - :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 : 각 국가별 재개관 계획 사례
 - 도서관협회, 국가도서관 및 유관 기관들의 대응
-

국도서관협회(ALA)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활동을 공유하고, 관중별/규모별 도서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공유하며,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⁶⁾ 이 웹사이트에서 코로나 19 뉴스, 코로나 19 도서관 대응사례, 개별도서관에서 필요한 정책 목록,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사서/이용자 교육 훈련 정보원 등을 공유한다.

특징적인 사항은 도서관을 위한 정보원 제공과는 별도로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 19 회복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점이다.⁷⁾ 현재의 상황과 향후 회복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각 지역 도서관들이 체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미국 도서관계의 코로나 19와 대응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모범대응 사례 공표문이다(FEMA 2020). 이 사례 발표에서 미국 도서관계의 세 가지 유형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이다. 일부 도서관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의료 종사자 및 대중을 위한 개인보호장비(얼굴보호대용 머리띠 등)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및 개인 위생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노숙자 보호소에 손소독제 배포 등)을

6) ALA Pandemic Preparedness Resources for Libraries
 〈<http://www.ala.org/tools/atoz/pandemic-preparedness>〉

7) COVID-19 Recovery 〈<http://www.ala.org/tools/covid-19-recovery>〉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도서관은 도서반납함과 드라이브 스루 창을 용도 변경하여 코로나 19 관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⁸⁾

둘째는 도서관 공간의 용도 변경이다. 휴관으로 인해 활용이 가능해진 도서관의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앵커리지 지역에서 비상운영센터(EOC)가 팀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으로 업무공간을 이동한 사례가 있으며, 달라스와 텍사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경찰 공무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 지역 공공도서관은 노숙자를 위한 자동차 숙영지로 주차장을 개방하였다.

셋째는 커뮤니티 지원이다. 도서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관련 정보(지역 감염 완화대책, 세금 및 실업 문제 등)를 제공하며, 지역 식량배급업체와 제휴하여 무료 어린이 도서 및 디지털 서비스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와 관련된 지역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 커뮤니티 스토리를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더욱 적극적인 이용자 지원서비스로서 사서들이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을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절 특화' 콜센터를 운영하여 노인 이용자의 일상 건강점검, 대화, 코로나 19 정보 문의에 대한 대응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자책을 제공하였다.

4. 공공도서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임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분석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도서관계의 외부 환경 변화는 향후 도서관계의 지역사회에서의 임무에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한편, 지금까지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내부 업무 프로세스는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공공도서관 재난 대응 매뉴얼과 재난상황에서의 임무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분명한 점은 도서관이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생활 SOC로서 지역 밀착형 문화기관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온 국내 공공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을 꾸준히 강화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임무의 외연 확장은 미국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되어온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도서관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인된 사회적 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난 시기에 본연의 도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상황에서 커뮤니티 지원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도서관에 그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8) 도서반납함을 통한 마스크 기부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도서관 드라이브 스루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폐쇄된 관공서 업무(실업급여 신청서 접수 등)를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국가의 사례에서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은 주민들의 감정적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역주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의 우울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과 지역상권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만하다. 독서마일리지 등을 통한 지역상권 쿠폰북을 제공하거나, 주민들의 구직을 위한 일련의 활동도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재난의 경험을 아카이브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어려움, 의료계와 지역 주민들의 대응 사례, 취약계층의 구술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시기의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추후 유사 사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기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를 계기로 도서관의 언택트 시스템과 오픈형 스페이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산과 공간의 여력이 있는 대규모 도서관을 위주로 실행되어 왔으나, 코로나 19는 향후 규모와 관중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들이 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서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시설 도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오픈형 스페이스를 확장하여 위기 시에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폭 변화된 내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도서관계의 시사점과 전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도서관 재난대응 매뉴얼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유형별 도서관 대처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중대 재난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국가의 도서관 대응 임무를 조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이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서관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임무 분석 결과, 국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관 임무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적절히 지원되어야 하며,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의 자동화도 함께 실행되어야 함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점은 재개관 준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신속하게 재난 이전 수준의 서비스로 회복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재난 이후 달라진 내·외부 환경을 어떻게 적용하여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 19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 19 상황이 이 1년 여간 지속되면서 도서관계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은 다른 국가의 사례와 다르게 위기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신속하게 지역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가동되어야 한다. 향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 사서 단체, 관할 부처가 함께 필요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2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웹에서 확인하세요. [online] [cited 2020. 12. 1.]
 <<https://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37334&schBdcode=&schGroupCode=>>
- [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5.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3] 김성원. 2020. 감염병 상황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47-267.
- [4] 김포옥. 2006. 한국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85-110.
- [5]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 [6] 노영희, 노지윤. 2020. 도서관을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55-77.
- [7] 박태연, 오효정. 2020.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51-279.
- [8] 배경재. 2020. 재난상황에서의 해외도서관 매뉴얼 및 주요 대응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온라인 프로그램 자료집』, 2020년 10월 2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9] 송민선. 2020. 좌충우돌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례중심.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온라인 프로그램 자료집』, 2020년 10월 2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0] 신민주. 2020. 사회의 재난이 사서의 재난과도 같았던 날들.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온라인 프

- 그림 자료집』, 2020년 10월 2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1] 신지은, 배경재. 2015. 정보제약 상황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팝업도서관 모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1): 205-225.
- [12] 위키백과. 2020.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피해. [online] [cited 2020. 12. 1.]
 <https://ko.wikipedia.org/wiki/도호쿠_지방_태평양_해역_지진>
- [13] 이정수, 김태경, 김보일, 정재희. 201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77-100.
-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20.8.18, 법률 제17479호).
- [15] ALA. 2020. *COVID-19 Recovery*. [online] [cited 2020. 12. 1.]
 <<http://www.ala.org/tools/atoz/pandemic-preparedness>>
- [16] ALA. 2020. *Library Disaster Preparedness & Response: Home*. [online] [cited 2020. 12. 1.]
 <<https://libguides.ala.org/disaster/home>>
- [17] ALIA. 2010. *ALIA Guide to Disaster Planning, Response and Recovery for libraries*.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ww.alia.org.au/sites/default/files/documents/ALIA_Guide_Disaster_Plan_Resp_Recover.pdf>
- [18] FEMA. 2020. *COVID-19 Best Practice Information: Library Support for Communities*.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07/fema_covid_bp_library-support.pdf>
- [19] Hagar, Christine. 2014. *The US Public Library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A Whole Community Approach*.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orldlibraries.dom.edu/index.php/worldlib/article/view/548/472>>
- [20] Halsted, Deborah D., Clifton, Shari C. and Wilson, Daniel. 2014. *Library as Safe Haven: Disaster Planning, Response, and Recovery: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ians*. Chicago: ALA/Neal-Schuman.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ww.alastore.ala.org/sites/default/files/LibraryAsSafeHavenPDF.pdf>>
- [21] IFLA. 2020. *COVID-19 and the Global Library Field*.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ww.ifla.org/covid-19-and-libraries#plans>>
- [22] IMLS Blog. *Libraries and Museums Respond to Superstorm Sandy*. [online] [cited 2020. 12. 1.]
 <<https://www.ims.gov/blog/2012/11/libraries-and-museums-respond-superstorm-sandy>>
- [23] JLA. *Situation Report o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online] [cited 2020. 12. 1.]

〈<http://www.jla.or.jp/portals/0/html/earthquake-e/situationreport.html>〉

- [24] Taro, Miura, 2011. *Libraries Situation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online] [cited 2020. 12. 1.] 〈<http://www.jla.or.jp/Portals/0/data/english/IFLARreport.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0. Check the library'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esponse manual on the web. [online] [cited 2020. 12. 1.]
〈<https://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37334&schBdcode=&schGroupCode=>〉
- [2] NLK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5.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Kim, Sungwon,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Library Service in the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47-267.
- [4] Kim, Po-Ok, 200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85-110.
- [5] Noh, Younghee, Kang, Pil Soo and Kim, Yoon-Jeong,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Library's Online Services to Overcome COVID-19."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185-210.
- [6] Noh, Younghee and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Utilization of Libraries as Evacuation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55-77.
- [7] Park, Tae-Yeon and Oh, Hyo-Jung, 2020. "A Study on Library Service in the Post-COVID Era through Issues on Medi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51-279.
- [8] Bae, Kyung-Jae, 2020. Manuals and Key Responses of Overseas Libraries in Disaster Situation. In *Proceedings of the 57th KLA General Conference*.
- [9] Song, Min-Sun, 2020. Surviving the COVID-19: Public Library Case in Seoul. In *Proceedings of the 57th KLA General Conference*.
- [10] Shin, Min-Joo, 2020. The days when the social disaster was like a librarian's disaster. In

Proceedings of the 57th KLA General Conference.

- [11] Shin, Ji-eun and Bae, Kyung-Jae. 2015. "A Study on the Pop-Up Library Model for the Citizen's Right to Know in Information-Constrained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205-225.
- [12] Wikipedia. 2020.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online] [cited 2020. 12. 1.]
〈https://en.wikipedia.org/wiki/2011_T%C5%8Dhoku_earthquake_and_tsunami〉
- [13] Lee, Jung-Soo, Kim, Tae-Kyung, Kim, Bo-Il and Chung, Jae-Hee. 2016.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77-100.
- [14] Korea.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2020.8.18, Act No. 17479).

